



## 한강의 역사와 함께 흘러온 '황포돛배'

###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찾아서(12)



#### 제11호 조선장 김귀성씨

돛을 달고 강으로 바다로 향하는 배를 바라보면 우리네 삶과 비슷하다. 언제 어디서 풍랑을 만날지 모르고 난파돼 바다 속에 잠길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예정된 항로를 따라 묵묵히 가야하는 것이 인생.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의 섭리를 어길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닌가.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1호 조선장(造船匠) 김귀성씨(53·하남시 배알미동)가 제작하는 배에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조상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배의 용도에 따라 실용성을 고려한 세심함, 오늘날 건축에까지 이용되는 기술은 입이 벌어지게 만든다.

“전통적인 배를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배의 몸체 뿐 아니라 그 안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오늘날 건축술에도 이용되고 있지요. 우리처럼 과학적이고 정교한 배를 만들어온 나라는 없을 겁니다.”

#### 하남 배알미동서 9대째 가업 이어

#### 인간문화재 부친 故 김용운에 사사

우리역사에서 한강은 당대 문화의 중심지였다. 예로부터 강을 따라 문화가 생성, 전파되었다는 점에서 볼때 이는 당연한 점. 개항 이후 철도가 부설되고 자동차가 다니는 신작로가 생기기 전까지 한강은 한양도성으로 왕래하는 주요 내륙 교통로였다. 이런 교통요지에는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한강 하류를 둘러싸고 있는 배알미동에서는 옛부터 선형 및 구조가 특이한 마상이배와 장사배를 만들어 한강상류(한강이북)를 오르내렸다.

한국의 돛배는 대부분 황포돛배라는 명칭으로 많이 남아 있다. 황포라는 명칭은 돛의 색깔이 누렇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한강의 역사를 말하는 대표적 상징물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모양은 황포돛배가 모여있는 형상. 조선시대에는 한강을 왕래하면서 상류로는 단양,

제천에서부터 하류인 마포에 이르기까지 식량, 쌀, 소금 등을 수송했다.

김귀성씨는 하남시 배알미동에서 9대째 살고 있다. 조선장이자 인간문화재였던 부친(故 김용운)의 영향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배 만드는 것을 보고 자라 14세가 되던 해부터는 본격적인 가르침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가업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전통 배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자 시작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른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군 복무를 한 것과 제대후 2년간 회사생활 한 것을 제외하면 배 만든 일 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 '황포돛배'... 식량 등 물류 수송 한몫

#### 1960년대 '전성기'... 품귀 현상까지

선전은 배알미나루터에서 사는 함복수. 하극나, 함낙주 밑에서 기술을 배워 목선 제작을 시작했다고 한다. 선전의 배 만드는 솜씨는 워낙 뛰어나 만드는대로 팔려 나갔으며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배가 운송수단이자 교통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60년대에는 황포돛배가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이후 댐이 강을 막고, 운송수단이 화물선이나 기차로 바뀌고, 신작로가 생기면서부터 목선

만드는 일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기계화, 대량화된 플라스틱배도 등장해 목선 만드는 일로는 살길이 막막했다. 김씨는 이 때 화재보험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다 이내 돈 때문에 장인의 길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이라 느껴 다시 선전과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94년도에는 부친의 뒤를 이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현재 김씨는 국내 유일의 황포돛배 제작자로, 모형 전통배를 제작해 관광사업화 할 것을 구상 중이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에 산재한 전통배를 수집해 원형대로 복원하고 설계도 등 배와 관련된 자료 및 의국의 배들을 수집해 전시장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배 전시장 계획은 수년째지만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문제도 그렇고 아직 전수관조차 없어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꼭 이루어낼 것입니다.”

현재 하남시 나무고아원에서 보조 목수 5명과 함께 작업을 하고있는 김씨는 울초 경기도와 하남시가 발주한 황포돛배 문화재를 복원 중이다. 부친과 함께 작업해 하남시청에 보관해 오던 황포돛배가 2년전에 부식됐기 때문. 황포돛배란 말은 돛이 되는 광목을 누런 황토물을 들여 쫄음 방지하고, 비바람을 맞아도 변하거나 썩지않게 만든데서 비롯됐다.

길이 20.5m, 폭 4m, 높이 1m20cm로 제작하고 있는 김씨의 황포돛배에는 우리고유의 전통 조선술

이 집약돼 있다. 특히 황포돛배처럼 강에 띄우는 강배의 바닥은 유동적이다. 강은 바닥의 구조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지나는 우리 고유의 강배는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김씨가 현재 제작 중인 황포돛배의 경우 30cm가량이 강 바닥의 구조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도록 만들고 있다.

#### 전국에 산재한 '전통배' 원형 복원

#### “배 전시장...어렵지만 꼭 설립할 것”

이 기술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배바닥에 활처럼 생긴 곱창쇠를 12개 정도 가로지른다. 곱창쇠는 참나무 각목이나 팥쪽크기의 곧은 참나무를 원료로 하는데 활처럼 약간 굽게 해 붙이면 배 밑바닥이 땅이나 돌에 부딪혀도 바닥송판이 움푹 들어갔다 다시 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무처럼 유동적으로 된다. 때문에 수심이 얇고 자갈이 많은 팔당에서도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다.

김씨가 제작하는 배의 특징중 또 하나는 옷칠, 옷을 칠함으로써 부식을 막고 내구성을 튼튼히 하며 영구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에 옷칠을 합니다. 돛의 경우 옷칠을 한 것을 사용하지. 세심하게 신경써야 견고하고 오래 남을 수 있는 배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고유의 배 제작시 중요한 또 다른 공법중 하나는 배의 몸체를 제작할 때 쓰는 아엽과피다. 양 옆에 흙을 파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 방법. 아엽과기는 판자와 판자 넓이를 붙이는 넓배기와 판자의 끝을 붙이는 동배기가 있다. 동배기는 흔히 있는 이음새 붙이기지만, 넓배기는 배 제작시에만 사용되는 공법이다. 아엽을 파서 붙인 다음 특수제작한 쇠못으로 몸체를 고정하고 나무땀새를 대나무밥으로 메운다. 대나무밥으로 메우므로써 물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고 공간이 있으므로 해서 쿠션 역할도 해준다. 배 머리 또한 아주 중요하다. 배 앞 부분이 수그러들면 물로 파고 들어가고, 앞이 너무 높으면 처앉아 있으면 바람을 차고 나가는 대신 바람에 채어 배가 돌기 때문에 몽둥이쳐서도 적당한 높이가 필요하다.

#### 전통 '조선술' 문서화 작업 진행중

#### 바닷배도 제작... 전통 잇기 '심혈'

돛을 세우는 디딤바닥이 되는 멍아에도 우리고 유 조선술의 지혜가 담겨 있다. 멍아는 돛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견고하기 때문에 운항시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배 몸체에 끼우도록 제작하기에 흠을 파는데 꽤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돛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정조대왕이 화성을 방문할 때 배를 이어 다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배의 용도가 단순히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으로 생각되었던 거죠.”

김씨는 또 황포돛배 외에 자신의 작품이 될 바닷배도 만들고 있다. 아직 이 바닷배에 대해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우리배를 만드는 김씨의 노력을 놀랄 뿐이다.

배 만드는 작업 외에 조선술을 문서화 시켜 글로 남기는 작업도 진행중이란다. 몇대째 이어온 가업이지만 모두들 구두로 전할 뿐 글로 남긴 것이 없어 후대에 갈수록 사양될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서다.

“지금 이 배에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은 현재 건축물을 지을때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조선술이 과학적이었던 것이죠. 이를 오래도록 보존하는 것은 근거를 남기는 일일 것입니다.”

조선장이면서 경기도무형문화재 보존협회의 이사장으로, 끊임없이 우리 전통문화를 가꾸려는 그의 모습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연섭·박노훈기자 nhpark@kgib.co.kr  
사진/전형민기자 hmjeon@kgib.co.kr



#### 경기도무형문화재

#### 제11호 조선장(造船匠)

#### 김귀성씨가 제작하는

#### 배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 배의 용도에 따라

#### 실용성을 고려한 세심함,

#### 오늘날 건축에까지

#### 이용되는 기술은

#### 입이 벌어지게 만든다.